

# 북한 용천 사고 관련 보고

2004. 4. 27(화)

통 일 부



### 3. 관련 대책

- 4.23 대통령 권한대행은 “매우 불행한 사고로서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”고 밝히고, 인도적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시
  - 4.23 통일부장관은 “이번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생각”이라는 입장 표명
- 4.24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, 용천 재해에 대한 지원을 결정
  - 4.25 [용천재해대책 실무기획단 회의](관계부처 국장급)를 통해 세부 지원계획 수립

#### < 지원계획 내역 >

- 의약품, 응급구호세트, 생필품 등 100만달러 상당 긴급구호물품 우선 지원
  - 의약품 72종, 의료장비 및 의료비품 91종, 응급구호물품 3,000세트, 컵라면 10만개, 생수(1.8ℓ) 1만개, 담요 3,000장, 운동복 3,000벌 등
- 의료진, 병원선을 현지에 파견하여 응급의료활동 실시 추진
- WHO(세계보건기구)의 대북구호활동에 20만불 지원
-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성금·물품을 한적에 지정기탁을 의뢰할 경우, 한적에서 수송비를 지원
- 시설복구 등 추가 지원문제는 남북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

- 긴급구호 소요비용은 약 30억원으로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
  - 구호품구입·수송비 12억원, 의료진·병원선 파견비 9억원, WHO 지원비 2.4억원, 예비비 6.6억원

## 4. 대북협의를 및 향후 조치계획

### 가. 대북협의를

- 4.24 정부는 위로의 뜻과 함께 지원의사를 담은 한적 총재의 대북전통문편에 시설복구 등 이재민 지원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을 제의
  - 4.26에는 긴급구호품, 응급의료진 파견 등 지원 상세내용과 조속한 전달을 위해 경의선 육로를 통한 수송을 제의하는 대북전통문 전달
- 이에 대해 북측은 4.26 북적 위원장 명의의 대남전통문을 통해 우리측의 지원의사에 사의를 표하면서
  - 긴급구호 물품은 해로를 통해 남포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
  - 응급의료진과 병원선 파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료진이 있다는 이유로 사양
  - 피해지역 시설복구 등 이재민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접촉을 4.27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

### 나. 향후 조치계획

- 4.27 피해지역 복구 지원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(개성)
  - 시설 복구용 자재·장비와 기술인원 파견 문제 등 협의
- 긴급구호물품은 4.28 인천-남포간 해로를 통해 전달 예정
- 지자체 및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에도 적극 협력하되, 체계적·효율적 지원을 위해 한적 창구를 활용하도록 유도 [끝]